

# 'KREI리포터' 충남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4월 12일(목) 11:00~15:00
- 장 소: 도예촌(충남 공주시)
- 참 석: 총 11명
  - 충남지회 리포터(8명): 도영미, 박인범, 박진수, 유영순, 육범수, 장석우, 정태천, 황유연
  - 연구원 관계자(3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편혜진 위촉연구조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3:00	집결 및 점심식사	도예촌
13:00~15:00	간담회	리포터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2. 주요 논의 내용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추진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점
  - 유영순: 농약 사용을 규제하는 대신 제조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인이 농약을 모두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농약사에서 권하는 것으로 구입해다 쓰는데 농약사고가 발생하면 농민 탓이 되어버린다. 개개인이 농약허용물질을 지켜나가기 어려우니 농약 생산을 일원화하거나 농약 제조 및 처방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영미: 우리 농촌의 밭은 부분별로 작목이 다르다. 농약시비를 어떻게 달리 구분해야 할지, PLS제도의 관건이다.

## ○ 충남지역 농업이슈 및 현장여론 수렴

- 박진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구조에서 생산비와 소비물가의 싸움이 계속 되는데, 실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이 계속 된다고 보여 진다. 농업인이 배추를 생산해 400원에 팔았는데 소비자는 2,000원에 사게 된다. 이는 농산물이 비싸다는 인식만 전달하게 되고 농업인 소득창출과는 무관한 가격이다. 농산물의 중간 마진률은 공산품을 뛰어 넘는 수준이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 하자고 하나, 이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농산물 생산과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을 통계, 분석하여 농산물 수요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 육범수: 2001년에 귀농해 농촌생활을 하면서 개는 마당에 풀어두고, 닭을 키워 건강한 계란을 맛볼 수 있는 시골살이의 특권을 누려왔다. 최근 들어 통행 편의를 위해 농로 이곳저곳을 콘크리트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시골은 시골다워야 찾아온다. 땅을 온전하게 밟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도시와 비슷한 편의만 찾는 것은 농촌의 자원, 곧 '농촌다움'을 해치는 길이라 생각한다. 외적인 환경조성이나 편의성이 아닌 지역만의 색깔을 담는,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 박인범: 사과농사를 지으며 퇴비로 활용할 겸 최근 순환농법을 시도하려고 염소, 닭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계획해 만든 축사가 아니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료 주기, 축분 제거 등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수작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을 투자하려면 그만큼 수익이 나와야하는데 사실상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 규모를 축소하고 취미삼아 몇 마리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 최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곧 환경단체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 주변 양계장에서 공조시설을 설치해 환풍기를 돌리고 있는데 오염물질은 환풍기로 인해 위로 올라가 마을로 유입하고, 정작 오염물 측

정은 축사 곁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환풍기를 돌려 마을로 날아 오는 오염물질 속에는 살충제 등 어떠한 물질이 섞여있는지 주민은 알지 못한다. 대규모 축사나 제조공장 등은 오염 배출물질을 검사해 공개하고, 공조시설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올바른 측정방식으로 규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황유연: 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에 따라 높은 건폐율을 적용하는데, 농업 지역은 건폐율 20%로 제한되어 있어 저장창고 등 농업 시설물 건립에 한계가 많다. 40~50% 정도로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
- 도영미: 1) 농촌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도시는 주로 아파트가 있어 쓰레기 수거를 관리하지만, 농촌에서는 따로 쓰레기 배출장소도 구분되지 않아 앞마당에 내다놓기 일쑤이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방치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폐비닐 수거도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매우 적은 횟수이다. 아파트처럼 마을마다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 한다. 2) 바쁜 시간에 끼니를 때우고자 편의점에 가보면 샐러드, 과일, 계란 등은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 먹기에 친숙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식생활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과일 및 채소 도시락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면 좋겠다. 3) 요즘 농촌은 농사 지어 돈 벌기는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두는 서울 집값은 날로 오르는데 농지는 값이 오르긴 커녕 농지보유세를 부과해 갖고 있는 것만도 쉽지 않다. 특히 산지 보전, 개발 규제 등의 목적으로 절대농지는 활용할 수 없으니 도시와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 육범수: 오래전 지어두었던 농산물 가공제조시설을 식당으로 개조해 농가식당을 운영하려 계획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다. 건축법이 바뀌어 건물이 내진 설계되어 있고, 냉난방 조절 등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물론 시대와 환경에 맞게 건축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기존시설을 신축건물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이 바뀌고 개정될 때, 그 이전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제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장석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농촌은 개인의 생산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 크다. 관행농법보다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보호, 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충남지역 리포터 활성화 방안 논의

- 이번 간담회는 농번기 때라 회원 참석률이 저조한 편
- 리포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리포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 당부
- 충남지역 리포터 활성화를 위해 충북지역과의 연합간담회 추진, 회원 농가 견학 프로그램 마련, 명예회원 초청 등 대안을 제시
- 3분기 간담회는 육범수 회원 농가에서 추진 예정

## 3. 이모저모



## 4. 소요비용

○ 소요비용: 233,000원

- 지변과목: 2018년 KREI리포터 운영 사업-각 비목

구분	내용	추정금액(원)	소요금액(원)
회의비	○ 다과비: 3,000원×24명	72,000	0
	○ 식대: 30,000원×24명	720,000	233,000
계		792,000	<b>233,000</b>

※ 실제 참석인원: 11명